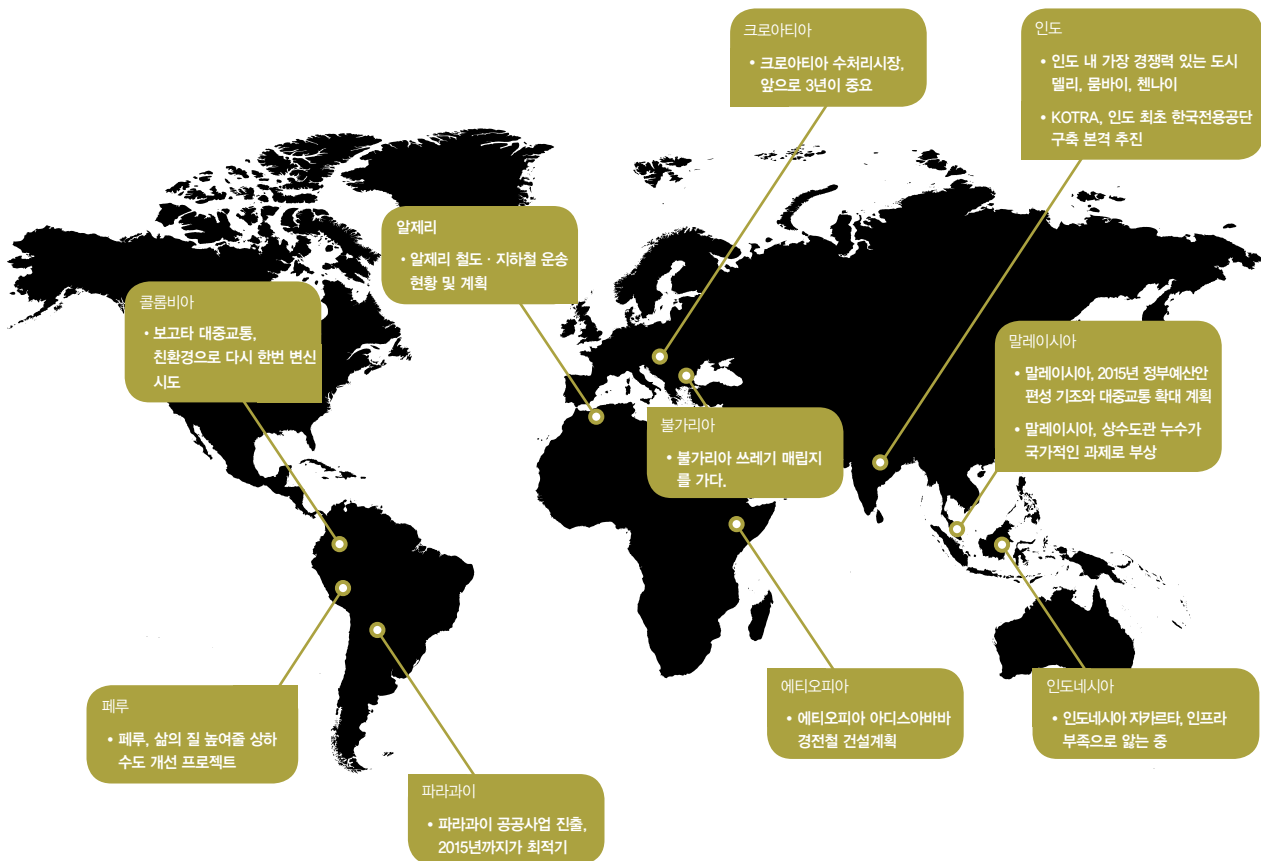


세계인프라 시장동향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본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해외시장포털정보사이트인 globalwindow.org의 최신 정보를 관련기관 협의아래 일부 발췌하여 정리



도시개발

인도 내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델리, 뭄바이, 첸나이 순

2013년 인도 도시경쟁력 1위는 델리(Delhi), 2위 뭄바이(Mumbai), 3위 첸나이(Chennai)이다. 인도 비즈니스월드(BUSINESS WORLD)는 2008년부터 매년 인도 내 도시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하버드대 교수 Michel E. Porter의 다이아몬드 이론(Diamond Model)에 적용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크게 인프라(재정적 기반, 물리적 기반, 통신, 행정, 국민역량, 혁신), 수요조건(인구, 소득 분배), 기업경쟁력(기업 다양성, 인센티브), 제도적 인프라(수요자 수준, 제도적 지원)로 총 12부분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표1 인도 도시경쟁력 순위 2013

순위	도시	총 점수	인프라	수요조건	기업경쟁력	제도적지원
1	델리	69.89	66.76(2)	71.80(3)	80.74(1)	65.09(1)
2	뭄바이	69.88	69.06(1)	73.85(1)	77.04(2)	63.09(4)
3	첸나이	63.40	62.48(4)	67.36(4)	64.12(7)	61.95(6)
4	하이데라바드	62.81	60.16(9)	66.22(5)	62.76(8)	65.04(2)
5	콜카타	62.43	62.57(3)	62.75(7)	60.77(11)	63.34(3)
6	구르가온	62.35	60.69(6)	64.62(6)	67.81(4)	59.29(11)
7	노이다	62.27	61.49(5)	54.66(31)	69.18(3)	62.40(5)
8	벵갈로르	61.70	60.52(7)	72.98(2)	60.38(12)	57.86(23)
9	푸네	61.43	59.88(11)	61.16(9)	66.02(6)	60.41(9)
10	아메다바드	60.52	60.42(8)	61.50(8)	59.58(15)	60.83(7)

주 : 괄호 안은 영역 별 도시 순위임
자료 : Institute for Competitiveness, India

델리는 델리 메트로(Delhi Metro) 등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접근성이 좋고, 풍부한 인재, 높은 GDP수준으로 인도의 수도로서 장점을 잘 살려 발전하고 있어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델리는 수도권(National Capital Region, NCR) 지역에서 경쟁력 있고 의욕 넘치는 인재가 모여드는 곳으로 델리주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은 지난

5년간 인도 전체 평균인 7.9%보다 높은 10.3%를 기록했으며 인구당 소득 수준은 20만 루피로 인도 내 최고 수준이다. 인프라 투자에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델리주 정부는 2012/13년 지출의 20%인 265억 루피를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2013/14년에도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인프라 산업 지출비가 전체의 46%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뭄바이는 인도 교통, 산업의 중심지로 150여 년간 산업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인도 최대 규모의 도시이며 육상과 해상 및 항공 교통망의 발달과 투자친화 정책을 통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선호지역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또한 뭄바이에서는 인도 전체 주식거래의 70%가 이루어지는 등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뭄바이시의 주요 인프라 추진 사업은 나비뭄바이 신공항 건설, 뭄바이 메트로 건설, 뭄바이 모노레일 건설, 이스턴 프리웨이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남부의 대표 도시인 첸나는 잘 정비된 인프라와 거대 IT 업계들의 진입으로 성장하고 있다. 벵갈로르에 주로 입지했던 IT기업들이 최근 첸나리로 옮기는 추세이다. 주로 값싼 부동산가격과 인재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프라 수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첸나이의 잘 정비된 교외 철도네트워크는 근교 인접한 도시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첸나이 전장 25km의 교외 고가철도는 첸나이 해변에서부터 발라체리(Velachery) 교외까지 운행되며 21개 철도 역을 경유한다. 주정부는 Vision 2023을 발표, 향후 10년 내 첸나이를 아시아 3대 투자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전력 최대공급량을 2만MW로 늘리고, 투자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하였다.

자료원 : BUSINESSWORLD, dnaindia.com 및 KOTRA 뭄바이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작성자 : 최민정(뭄바이무역관)

2014-01-31

KOTRA, 인도 최초 한국전용공간 구축 본격 추진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를 해소하고 인도정부의 외국 기업 투자유치정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Make in India)에 부응하고자 코트라는 인도 최초의 한국 전용공간 구축을 본격 추진하였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높은 세금 및 운송비로 직접 수출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고, 부

지 확보와 인허가, 취득 등의 애로사항은 중소기업의 인도 투자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뉴델리 서남단 110km 지점에 위치한 라자스탄 길롯 지역에 위치하게 될 이번 한국전용공단 건설로 높은 인프라 조성비용과 토지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쟁국의 인도진출 가속화와 시장 선점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라자스탄 님라나 및 길롯, 구자라트 만달 공단을 조성 중에 있으며, 타밀나두, 마하라쉬트라 등에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중국 또한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등 2개 주 공단 조성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자스탄 길롯지역은 철도/광역전철 및 고속도로로 연결되고, 델리 NCR 광역상권이 인접하여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렴한 토지비용과 인접 산업단지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원재료 조달, 아웃소싱, 운송비 등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Katuwasu 내륙항)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토지분쟁 및 노동분쟁 사례가 적고 전력 상황이 우수하며, 다양한 교육기관이 소재하여 양질의 노동력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렴한 임차료와 정부 차원의 싱글 윈도우 제공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위험을 최소화 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전용공단 조성 개요

- ▶ 위치: 라자스탄 길롯(뉴델리 서남단 110km 지점, 차로 2시간 소요)
- ▶ 규모: 106.481ha(263.11에이커, 100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 ▶ 토지가격: 2500루피(41달러상당)/㎡(규모에 따라 최대 35%까지 인하)
 - 수도권 인근 공단에 비해 1/4~1/10 수준이며, 인근 공단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
 - 인근 공단은 입찰에 의해 분양, 한국전용공단은 기준가격으로 KOTRA 추천에 의해 분양
- ▶ 공단 부지 및 인프라 조성, 운영: 라자스탄주산업개발투자공사(RIICO)
- ▶ 한국전용공단 구축 일정
 - 인프라 조성: 전력 및 도로 완비(2014년 12월 말), 상하수도 완비(2015년 1월 말)
 - 부지 할당: 2015.2~3월 경 예상

그림1 라자스탄 길롯 공단 조성계획 및 한국전용공단 부지



자료원: 라자스탄주정부 및 RIICO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작성자: 신진용(뉴델리 무역관)

2014-09-2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프라 부족으로 앓는 중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인도네시아 전체 GDP의 12.5%(2013년 기준)를 차지하는 명실공히한 경제 중심지이다. 지역 경제성장률도 6.11%로 국가 전체평균 5.8%에 비해 높고, 1인당 GDP는 약 1만 500달러로 국가 평균 3,500달러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다.

하지만 도시가 해발보다 낮게 위치하고 홍수 조절용 배수 및 빗물처리체계가 미비하여 매년 도시 전체가 홍수에 시달리고 있고, 도로 인프라 부족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자카르타 정부는 저지대 침수방지, 해안개발, 교통체증 해소 등을 목적으로 자카르타 북부 해안을 동서로 연결하는 350억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 방조제 건설을 시작하기로 9월에 발표하였다¹. 자카르타 주지사 권한 대행이 9월 말에 한국을 방문하여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보고 저지대 침수방지와 해안개발을 목적으로 자카르타 북부 해안을 동서로 연결하는 350억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 방조제 건설에 본보기로 삼겠다고 밝혀 국내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그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행률이 낮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에서는 매년 약 평균 10억 달러의 원조금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

¹ 주: 자이언트씨월(Giant Sea Wall, GSW)이라 불리는 이 방조제는 총 연장 32km로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자카르타를 동서로 연결하여 교통체증 해결에 기여하고 조석간만의 차로 발생하는 해안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단계로 방조제, 홍수조절운하 30km, 인공섬 17개와 국제공항 등을 건설하며, 다음 달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2단계로 해안과 인공섬 등지에 주거, 상업, 산업 지역 등을 갖춘 신도시를 205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에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국가개발 과제의 타당성 검토, 일부 프로젝트 실제 수행에도 활발히 참여 중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일본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JICA의 무상공여 및 차관지원으로 추진 중인 자카르타 지하철(Mass Rapid Transport, MRT) 건설도 마루베니 등 일본 기업들이 주요 프로젝트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안따라뉴스, 연합뉴스, 자카르타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은희(자카르타 무역관)

2014-10-06

교통

파라과이 공공사업 진출, 2015년까지 최적기

파라과이 정부 관계자는 2015년 시장선거까지 정부 영향력이 최대치로 발휘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지방선거 전까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메리카개발은행(IDB), 라틴아메리카산업은행(CAF), 남미공동시장인프라기금(FOCEM),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의 재원 뿐만 아니라 민관협력(PPP)법과 프로젝트파이낸스(PF)법을 통과시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도로사업은 주로 공공자금으로 공항, 수처리, 철도, 일부 국도 등이 PPP 혹은 PF로 추진 중에 있다. 단기간에 민간 투자를 받기 어려운 주요 공공사업은 국채 발행 극대화 등의 방안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힘쓰고 있다. 국채 발행으로 파라과이 정부는 10억 달러를 마련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인프라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특히 도로 인프라에 3억 5,000만 달러, 전력 인프라에 1억 달러, 공동대안주택에 1억달러, 시멘트생산인프라에 6,700만 달러, 농산업인프라에 5,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발주처인 파라과이건설교통부(MOPC) 히메네스 가 오나 장관은 올해 약 5억 달러 상당을 입찰했으며, 하반기 동안에 5억 달러 이상의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 파라과이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2015년 지방선거 이후 레임덕 현상으로 현

재의 추진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주요 SOC사업이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5년 이전에 적극 진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료원 : 파라과이건설교통부(MOPC)
 작성자 : 김대현(아순시온 무역관)

2014-10-07

보고타 대중교통, 친환경으로 다시 한번 변신 시도

보고타 대표 대중교통 시스템인 트랜스밀레니오(Transmilenio)가 콜롬비아 도시 대중교통의 현대화 및 친환경화에 나섰다. 2013년 10월에 발표된 콜롬비아 대중교통 기술혁신법령(Plan de Ascenso Tecnológico para el SITP)에 보고타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버스에 대해 친환경 연료 사용을 의무화되면서 보고타 대중교통 사업자는 탄소배출 감소 및 전기버스와 같은 무공해 차량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보고타 대중교통 시스템인 트랜스밀레니오의 대주주로 참여하는 보고타전력(Empresa de Energía de Bogotá)에 따르면 보고타 트랜스밀레니오 노선의 일부를 전력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구상 중이며, 그 밖에 전기 트램 도입을 통해 시내 대중교통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타 전기버스 도입 추진계획이 확실해지면서 콜롬비아 국내 기업은 물론 전기버스 기술력을 보유한 다양한 국가에서 콜롬비아시장 진출을 추진 중에 있다.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한 유럽국가의 적극적인 러브콜에 이어 중국의 로비 공세,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이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관심은 보고타시의 정책이 다른 지방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한다. 실제로 메데진, 칼리 등 주요 도시와 카르타헤나, 바랑끼야 등 카리브 지역 관광산업 중심도시 역시 유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고타 시의 도입 결과 및 성과에 따라 프로젝트 발주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 한다. 보고타 시에서 발주하는 대중교통 관련 프로젝트는 기타 지자체 프로젝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 수주 기업은 앞으로 콜롬비아를 비롯한 주변국 진출에 있어서 무형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Portafolio,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
작성자 : 성기주(보고타 무역관)

2014-08-19

말레이시아,

2015년 정부예산안 편성 기초와 대중교통 확대 계획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는 올해 10월에 의회에 제출될 2015년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안이 경제성장 촉진과 더불어 재정상태 개선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말레이시아 단결과 통합을 표방하는 '1 Malaysia' 블로그에도 '2015년 예산안: 우리의 노력을 계속합시다!'라는 표어를 제시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5년 예산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가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생활비 상승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차기 예산에서는 생활비 상승을 막고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대중교통체계 정비 및 확장도 계획 중이다.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수도권의 교통혼잡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클랑밸리 MRT' 프로젝트로 철도를 51km 늘리고 4칸 차량으로 일일 4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예정에 있어 어느 정도 교통체증 문제를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쿠알라룸푸르 남서부지역의 끌라나자야와 동북부 지역의 암팡을 연결하는 경전철(LRT)라인을 남서부 쪽으로 더 연장해 뿌트라하이츠(Putra

그림2 MRT 건설 현장



자료 : MRT Corp. 홈페이지

Heights)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복선전철을 쿠알라룸푸르 북부 도시인 이포에서 북부 국경도시인 빠당브사르까지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북부지역의 통근자가 수혜자가 될 것이다.

자료원 : 현지 언론 보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작성자 : 복덕규(쿠알라룸푸르 무역관)

2014-0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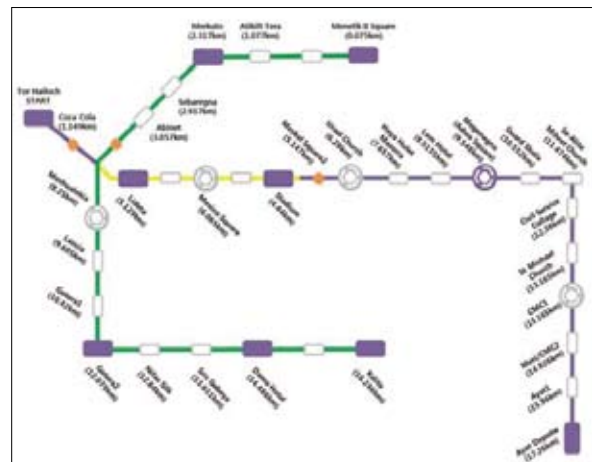
에티오피아 경전철 건설계획

경전철 건설은 에티오피아 경제개발계획의 최대 화두이다. 아디스아바바 시내 전체를 관통할 예정인 이 경전철은 총 길이가 31.2km로 총 비용 4억 7,500만 달러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15%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국 차관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중국 철도공사(Chinese Railway Engineering Corporation)가 건설 중으로 2015년 1월에 개통 예정이며, 후속 사업도 계획 중으로 최종 75km의 경전철 건설을 목표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경전철 건설로 향후 3,000명의 현지고용창출, 시민의 이동성 확보, 유통업 발달 및 소비 증진, 역세권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경전철에서 전자티켓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에티오피아-지부티 연결 철도 및 판아프리카 철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 이현우(아디스아바바 무역관)

2014-07-21

그림3 아디스아바바 경전철 노선도



자료 :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하기 위해 SPAN과 수자원관리회사 및 주요 당사자와 함께 무수수량(NRW)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액션플랜을 구축해 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자원 관리전문기업(PAAB)에 수자원 관리자산을 넘겨서 관리하는 것으로 무수수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N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일단 전문기업에 자산을 넘겨서 관리시키는 자산이관을 장려하는 중에 있다.

앞으로 누수방지기술 도입과 상수도용 석면시멘트 파이프를 교체하는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와 관련된 한국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자료원 : 현지 언론 보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작성자 : 복덕규(쿠알라룸푸르무역관)

2014-09-05

크로아티아 수처리시장, 앞으로 3년이 중요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EU 가입을 계기로 EU펀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크로아티아의 수자원 부문은 향후 2020년까지 동 펀드를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해 상하수도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선진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EU의 수자원 디렉티브 충족을 위해 2020년까지 지출할 총 비용은 총 80억 유로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크로아티아 수자원청(Hrvatske Vode)의 계획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자원 공급과 하수처리 투자비용이 거의 비슷하되 후반으로 갈수록 하수처리 투자비용 비중이 더 높아진다. 연도별로는 2018년을 최정점으로 총 10억 유로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크로아티아 제3의 도시인 리예카 시청 산하 수자원관리 기업인 KD VIK의 안드레이 마로키니 사장은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에 한국의 수자원 처리기술과 관련해 깊은 관심을 표하고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EU펀드 수혜 프로젝트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워터펌프 및 대형 하수처리시설 건립(가액 총 1억 유로)'를 준비 중으로 2014년 5월까지 관련 계획을 EU집행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EU가 펀드 수혜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입찰은 내년 중반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업계는 이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해 향후 3~5년간 크로아티아 수처리 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종말처리 프로젝트 시장뿐 아니라 수처리 관련 기기나 부품 등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염두에 뒀야 할 점은 수처리 프로젝트 대부분이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관리되어 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략 지역을 선택해서 특정 공기업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프로젝트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일정 규모를 하회하는 입찰의 대다수는 크로아티아 현지로 공표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업계는 직접적인 진출 노력과 함께 현지 잠재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수처리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EU 펀드를 통해 조달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U펀드 공략법 등을 사전에 익히는 것도 향후 진출 속도 및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원 : Implementation Plan for Water Utility Directives(크로아티아 수자원청, 2010.11), 크로아티아 수자원청 관련인사 면담,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작성자 : 양경순(자그레브 무역관)

2014-03-28

페루, 삶의 질 높여줄 상하수도 개선 프로젝트

2012년 기준 페루의 총 인구는 약 3,013만 명이며 이 중 76%는 수도권에, 24%는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한다. 페루는 지리적으로 정글, 산악, 해안 3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며 국토의 63%가 정글 지대, 27%가 안데스 산악 지대, 10%가 해안 지대이다. 페루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태평양, 대서양, 볼리비아와의 국경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인데 안데스산맥 지역은 티티카카 호수로부터, 해안가는 태평양으로부터, 정글 지역은 아마존 강이 흐르는 대서양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다.

페루 담수의 97%는 페루 전체 인구의 29%가 거주하는 아마존 정글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며, 1.7%만이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 리마와 그 밖의 해안지역으로 흘러들어온다. 게다가 페루에서 이용되는 물의 80% 이상에 0.5ppm 이상의 염소가 함유돼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비소, 질산염 등이 포함돼 물 사용에서의 건강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

런 지리적 영향과 상하수도 인프라 서비스 부족으로 페루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모두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표2 페루 수자원 공급현황

물 공급지역	인구(%)	사용가능 물(km ³)	1인당 사용가능 물(m ³)	농업에서의 물 소비량
태평양	70	37.4	2,027	53
대서양	26	1,998.7	291,703	32
티티카카 호수	4	10.1	9,715	13
총 합	100	2,016.2	77,534	98

자료 : Ministerio de Vivienda, Construcción y Saneamiento

페루 정부는 2006~2015년까지 ‘물은 생명이다(Agua es Vida)’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지역의 상수 89%, 하수 84%, 농촌지역의 상수 70%, 하수 60% 공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수를 위한 정화 시스템 및 폐수처리 시스템 증가와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투자액이 18억 달러(약 1조 9천 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 약 25억 누에보솔(약 1조 원) 규모의 상하수도 부문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2014년 상반기 상하수도 건설 및 개선을 위해 10억 누에보솔(약 4,000 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페루 투자청(ProInversión)은 2014년 상하수도 관련 주요 프로젝트로 치온(Chillon)강 댐 유지 및 개선 프로젝트와 리마 식수 공급 프로젝트를 예정하고 있다. 2014년 3분기 입찰이 계획되어 있는 치온(Chillon)강 댐 유지 및 개선 프로젝트는 약 4,5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2014년 4분기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리마 식수 공급 프로젝트는 약 4억 달러 규모로 특히 리마 식수 공급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와 한국 기업의 찬차마요시 수도개선사업 참여로 중남미 수도개선사업 진출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페루의 다른 지역과 다른 중남미 국가로의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자료원 : 페루투자청(ProInversión), 페루 주택건설상수도부(Ministerio de Vivienda, Construcción y Saneamiento), 국가물위원회(Autoridad Nacional del Agua),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다예(리마무역관)

2014-01-04

쓰레기

불가리아 쓰레기 매립지를 가다

9월 25일, KOTRA 소피아 무역관은 동유럽 매립지 프로젝트 조사단 일행과 함께 불가리아 남부 도시인 크르잘리 시를 방문해 쓰레기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매립지 현장을 둘러보았다. 현재 크르잘리시는 신규 매립지 셀(cell) 두 곳에 대한 건설 입찰을 이미 발표했고, 시공사 선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불가리아 환경수자원부 스테판 스테파노(Mr. Stefan Stefanov) 국장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지자체 기준으로 전체 58개 지역 가운데 34곳은 쓰레기 매립지 공사가 이미 완공되었고, 나머지 24곳 가운데 2곳만 남겨두고 모두 매립지 건설 입찰이 발표된 상황이라 한다.

하지만 지자체별 친환경 쓰레기 매립지 건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다. 당장 급한 쓰레기 매립지 입찰은 거의 완료했으나 향후 신규 쓰레기 매립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크르잘리시도 전체 쓰레기 매립지 건설지역 가운데 두 곳만 공사를 결정하고 나머지 네 곳은 예산 부족으로 제외되었으며 향후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불가리아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설비에 2단계 EU 구조결속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스테파노 국장은 규모가 약 2억 7,000만 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불가리아 정부는 쓰레기처리 문제로 인해 EU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어 친환경 쓰레기 매립지 건설 다음에는 쓰레기처리 설비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자료원 : 크르잘리시 상단, 불가리아 환경수자원부, KOTRA 소피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작성자 : 정순혁(소피아 무역관)

2014-10-02